

하루하루

그런 날이 있어!

사미 라모스 글·그림 | 제님 옮김

**2026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부문 대상 수상 작가
사미 라모스가 빚어낸 하루하루의 다양한 얼굴들!**

슬픈 날, 꼬인 날, 벅차오르는 날……

그 어떤 하루도 나를 만드는 소중한 조각이 됩니다.

억지로 바꿀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하루하루.

속상하고 꼬여 버린 날조차 나를 자라게 하는

한 조각이 된다는 아름다운 시간과 성장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하루에게 보내는

다정한 배웅이자, 오늘을 살아낸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따뜻하게 다독이는 그림책입니다.

오늘 밤, 서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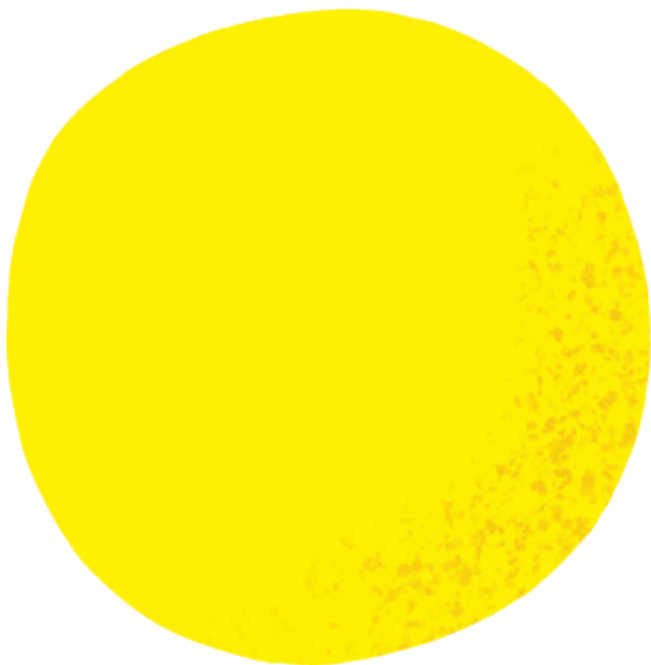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제님(번역가)



1.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빈 얼굴에 눈·코·입을 그리고 색이나 무늬를 더한 뒤, 어떤 날인지 글로 써 보세요.



오늘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

2.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어요.

나에게도 있었던 날 하나를 골라 표시하세요.

☐ 버거운 날 ☐ 운이 좋은 날 ☐ 평터질 것 같은 날 ☐ 꼭 안기고 싶은 날

☐ 복잡하게 꼬인 날 ☐ 느~~~~~린 날 ☐ 획 지나가버린 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

.....

3. 책에 없는 ‘나만의 날’도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는 날도 있어요.

(간질간질한 날/구름 낀 날/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자꾸 웃음이 나는 날/숨어 버리고 싶은 날/반짝반짝한 날 등)

나만의 날을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4. 오늘 하루를 모양으로 그린다면?

짝(친구, 가족 등)에게 보여 주고 어떤 날인지 맞춰 보기를 하세요.

뽀족뽀족, 둥글둥글, 꼬불꼬불... 무엇이든 좋아요. 오늘 하루를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짝에게 보여 주고 물어보세요.

“이건 어떤 날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5. 마법 지우개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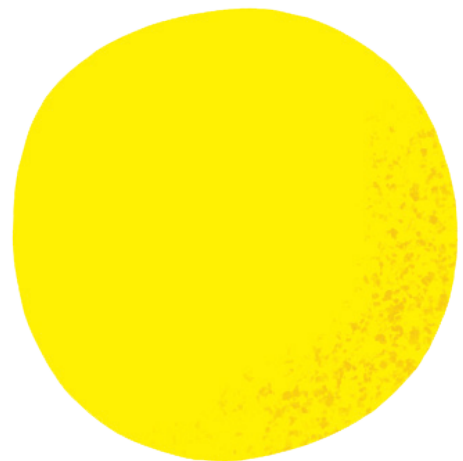
지워 버리고 싶은 하루가 있나요? 있다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보세요.

그런데 지울 수 없다면,
그 하루를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6.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내일에게 바라거나 해 주고 싶은 말을 적고, 내일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

내일에게,



“하루하루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용감해져요. 그렇게 한 살 더 자라요.”

-본문에서



“ 오늘 하루 어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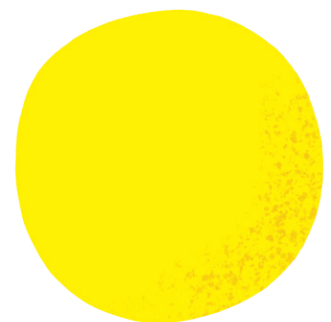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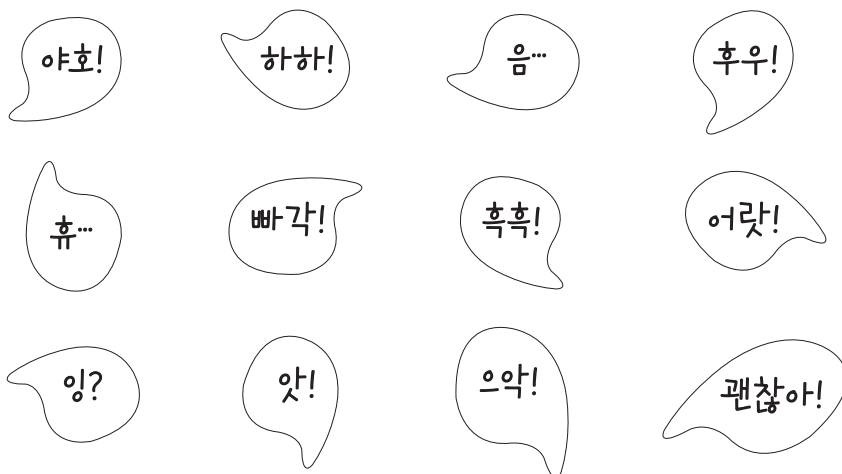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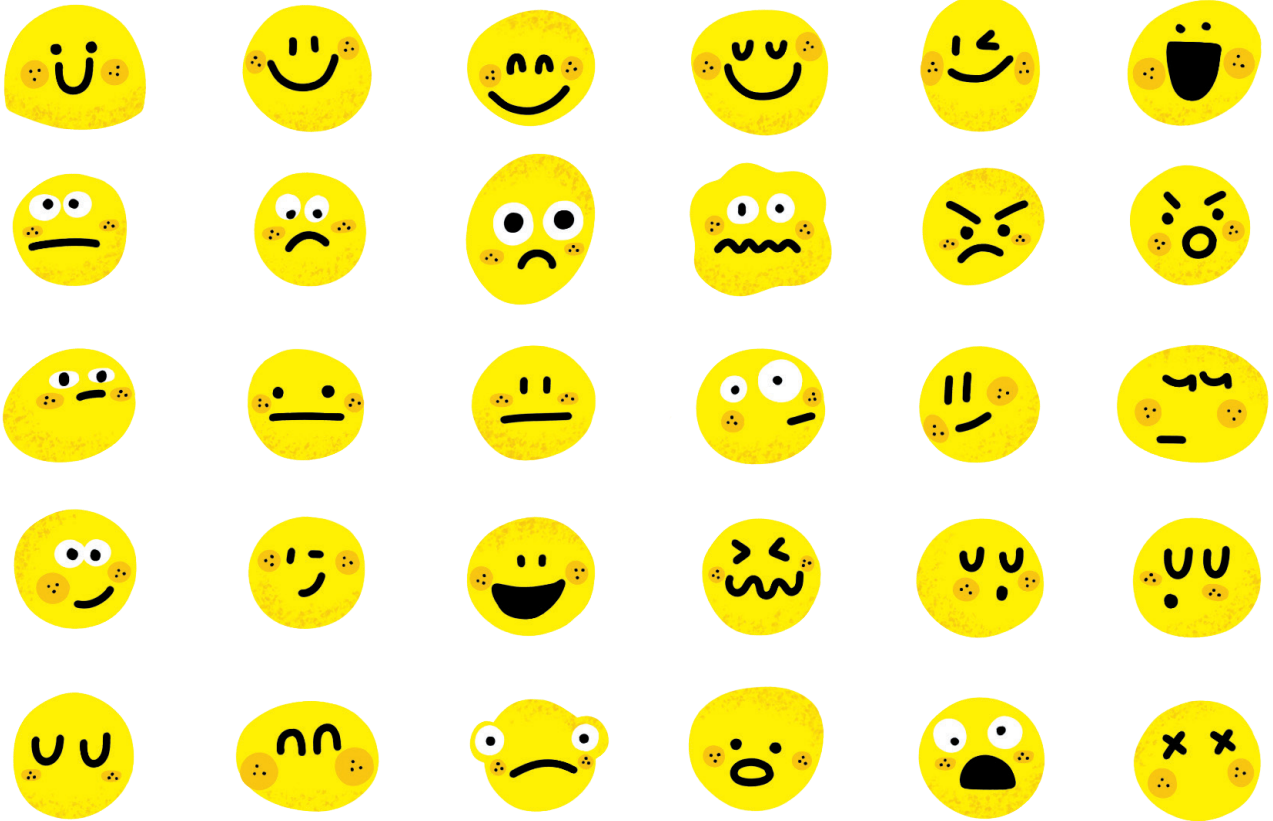
나의 하루와 닮은 얼굴을 골라 붙이고,

어떤 날인지 이름을 붙여 주고,

하루를 다독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나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오늘 하루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



함께 보아요! 사미 라모스 그림책

